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현황 분석

I.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배경

- 교육부가 2024년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 내용의 하나로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제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가 우리나라 대학 현장에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함. 2025년 3월 발표된 동 사업 기본계획에서도 교육부는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 가산점을 더욱 확대함
- 특히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에 대해 전공자율선택제로 모집하는 인원의 비율이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이러한 모집단계 혁신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그간 자유전공학부 등의 형태로 소수의 대학에서 운영해 오던 전공자율선택제가 많은 대학에 도입 및 확대 운영되고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 등록된 전공자율선택제 정보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전공자율선택제의 본격적인 확대 시행의 원년인 2025학년도 우리나라 일반대학 전체의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현황을 분석함. 이는 지금까지의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현황 관련 발표 자료들이 시행 계획 분석 또는 일부 대학들의 시행 현황 분석에 그쳤던 것에 비해 실제 모집 현황에 대해 전수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II. 전공자율선택제 개념 및 쟁점

- 교육부가 제시한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유형1'과 '유형2'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유형 1 :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등 제외¹⁾)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ex. 자유전공학부 등)
 - 유형 2 :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을 보장하는 경우(ex.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대학 등)

1) 모집단계 혁신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등 정부 정원관리 전공은 모수에서 제외하고,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 회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재직자·성인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수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예체능계열과 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공자율선택제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제도가 다소 급속하게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우려가 존재했음
 -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 : 비인기 학과의 축소, 기초 학문의 약화, 인기학과 교육의 질 하락
 - 대학의 준비 부족 :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프로그램 준비 기간 부족
 -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 : 재정 지원과 연계한 제도 도입 유도로 대학의 자체적 교육 혁신 저해
 - 정원, 등록금 결정 관련 대학 내부 진통 : 학과 간 정원 감축 관련 갈등 및 등록금 책정 관련 논란

III. 분석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자료와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²⁾에 등록된 전공자율선택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자료인출일 : 2026. 3. 26.)
 -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8-차-1. 등록금 현황 항목
 -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중 '전공자율선택제 여부', '포함대계열' 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맞추어 2025년 상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학과의 일반속성 정보 중 하나로 전공자율선택제 관련 정보 조사를 실시

▶ '전공자율선택제 여부' : 각 교육편제단위의 전공자율선택제 여부를 [해당없음], [유형1], [유형2]로 나누어 조사함. 대학이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여부를 입력한 내용에 대해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과 모집요강 및 전공배정지침 등 공식 문서를 근거로 하여 전공자율선택제 적용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고 수용

※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에 등록된 '전공자율선택제 여부' 정보는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학과의 전공자율선택제 해당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됨

▶ '포함대계열' : 포함대계열은 해당 교육편제단위 소속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속한 대계열을 의미함. 전공자율선택제가 적용된 모집단위에 대해 대학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중 해당되는 계열을 중복 선택하여 입력(대학자체계열 기준)

- 분석대상교는 대학정보공시 대상 대학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대학 전체에 해당하는 183개교임.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다른 종류의 대학들과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들은 분석에서 제외함. 설립 구분별로는 국공립대학 29개교(국립 28개교, 공립 1개교), 사립대학 154개교이며, 소재지 구분별로는 수도권대학 71개교, 비수도권대학 112개교임. 분교는 별도 분석, 캠퍼스는 본교를 기준으로 통합 분석함

〈표 1〉 분석대상교

구분	국공립	사립	합계
수도권	6개교	65개교	71개교
비수도권	23개교	89개교	112개교
합계	29개교	154개교	183개교

2)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는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관련 원자료 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이 대학정보공시 통합입력시스템에서 학교정보와 학과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함. 이렇게 수집된 학과 정보는 대학정보공시와 유관기관에 공유되어 해당 통계조사시스템 내 데이터 입력의 기반 정보로 사용됨



IV.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현황

전국 일반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현황

- 전체 183개교 대학 중 2025학년도에 유형에 관계없이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한 모집단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 대학은 118개교 (64.5%)이고, 65개교(35.5%)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한 비율이 75.9%로 사립대학 62.3%보다 높았고, 수도권대학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한 비율이 78.9%로 비수도권대학 55.4%보다 더 높았음. 이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시 거점대와 국가중심대, 수도권 사립대에 대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에 대한 가점표를 제시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25년에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한 대학 118개교 중 유형1만을 적용한 대학은 44개교, 유형2만을 적용한 대학은 19개교이고, 유형1과 유형2 모두를 적용한 대학은 55개교임. 유형1 또는 유형1과 유형2 모두를 적용하는 대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모집단계 혁신 성과에 대한 가점표가 유형1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2〉 전국 일반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현황

(단위: 개교, %)

구분		전공자율선택제 미시행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유형			전체
				유형1만 시행	유형2만 시행	유형1과 유형2 모두 시행	
전체 (183개교)		65	118	44	19	55	183
		35.5	64.5	24.0	10.4	30.1	100.0
설립	국공립	7	22	7	1	14	29
		24.1	75.9	24.1	3.4	48.3	100.0
	사립	58	96	37	18	41	154
		37.7	62.3	24.0	11.7	26.6	100.0
소재지	수도권	15	56	17	7	32	71
		21.1	78.9	23.9	9.9	45.1	100.0
	비수도권	50	62	27	12	23	112
		44.6	55.4	24.1	10.7	20.5	100.0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 분석대상 183개교의 전체 모집인원(정원내+정원외) 대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비율을 분석해 보면, 전국 일반대학에서 모집인원의 15.6%를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해 선발하였고, 이 중 유형1은 5.9%, 유형2는 9.7%로 나타남. 국공립(12.2%) 대학보다 사립(16.6%) 대학에서, 비수도권(13.1%) 대학보다 수도권(19.1%) 대학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한 비율이 높음

〈표 3〉 전국 일반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대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공자율선택제 미적용 모집인원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인원			전체
		유형1	유형2	합계	
전체(183개교)	300,872	20,868	34,732	55,600	356,472
	84.4	5.9	9.7	15.6	100.0



구분		전공자율선택제 미적용 모집인원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인원			전체
			유형1	유형2	합계	
설립	국공립	70,351	3,356	6,460	9,816	80,167
		87.8	4.2	8.1	12.2	100.0
	사립	230,521	17,512	28,272	45,784	276,305
		83.4	6.3	10.2	16.6	100.0
소재지	수도권	118,421	11,917	16,088	28,005	146,426
		80.9	8.1	11.0	19.1	100.0
	비수도권	182,451	8,951	18,644	27,595	210,046
		86.9	4.3	8.9	13.1	100.0
정원 구분	정원내	255,045	19,969	32,007	51,976	307,021
		83.1	6.5	10.4	16.9	100.0
	정원외	45,827	899	2,725	3,624	49,451
		92.7	1.8	5.5	7.3	100.0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 전공자율선택제 중점 추진 대상인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의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사립대의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인원은 26,898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0.2%에 달해 수도권 사립대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비율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제도를 적극 도입 및 확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 중점 추진 대상에 해당되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에서 약 18.0%의 모집인원을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하여 모집했는데, 이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에 이미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인 25%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임

〈표 4〉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따른 가점 부여 대상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공자율선택제 미적용 모집인원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인원			전체
		유형1	유형2	합계	
수도권 사립대 (65개교)	106,317	11,181	15,717	26,898	133,215
	79.8	8.4	11.8	20.2	100.0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 (22개교)	58,836	2,928	6,388	9,316	68,152
	86.3	4.3	9.4	13.7	100.0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 유형별 포함대계열을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에 속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모집단위의 수는 47개이고, 모집인원 규모는 6,169명이었음. 3개 계열에 속한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집단위 수는 63개였고, 이들 중 가장 많은 모집단위에서 제시한 선택계열의 조합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로 51개 모집단위, 8,918명임
- 2개 계열에 속한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모집단위 수는 10개였으며, 인문사회계열은 2개 이상 계열의 학과가 선택 가능한 것으로 제시될 때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선택 가능한 학과가 속한 대계열이 1개 계열인 16개의 모집단위를 살펴본 결과 실제 대학 내 하나의 계열만이 존재하는 경우, 포함대계열 입력을 잘못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이 존재했음

- 전공자유선택제 유형1이 적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의 87% 정도가 3개 계열 이상에 속한 학과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 과정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표 5〉 전공자유선택제 유형1의 포함대계열 분포

선택 가능 계열 조합	선택 가능한 학과가 속한 대계열(대학 자체 계열)					모집단위수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4개 계열	○	○	○	○	-	47개	6,169명
3개 계열	○	○	-	○	-	51개	8,918명
	○	-	○	○	-	11개	2,915명
	○	○	○	-	-	1개	124명
2개 계열	○	○	-	-	-	3개	634명
	○	-	○	-	-	2개	102명
	○	-	-	○	-	5개	887명
1개 계열	○	-	-	-	-	9개	703명
	-	○	-	-	-	1개	20명
	-	-	○	-	-	3개	139명
	-	-	-	○	-	3개	257명
합계						136개	20,868명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 전공자유선택제 유형2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74개 대학에서 해당 모집단위에 표기한 포함대계열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대학자체계열 기준 4개 계열에 걸쳐 있는 모집단위의 수는 3개였음.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속한 계열이 3개인 경우의 모집단위 수는 23개였고, 이 중 가장 많은 계열의 조합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임
-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2개 계열에 걸쳐있는 경우의 모집단위 수는 39개였으며,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의 조합이 17개 모집단위, 1,918명으로 가장 많았음. 유형2의 경우 단일 계열 내에서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인문사회계열이 모집단위 119개, 모집인원 11,8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모집단위 80개, 모집인원 9,663명으로 뒤를 이었음

〈표 6〉 전공자유선택제 유형2의 포함대계열 분포

선택 가능 계열 조합	선택 가능한 학과가 속한 대계열(대학 자체 계열)					모집단위수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4개 계열	○	○	○	○	-	3개	709명
3개 계열	○	○	-	○	-	13개	2,015명
	○	-	○	○	-	5개	418명
	○	○	○	-	-	3개	419명
	-	○	○	○	-	2개	613명
	○	○	-	-	-	6개	1,404명
2개 계열	○	-	○	-	-	4개	417명
	○	-	-	○	-	9개	808명
	-	○	○	-	-	1개	177명
	-	○	-	○	-	17개	1,918명
	-	-	○	○	-	2개	200명
	-	-	-	-	-	-	-



선택 가능 계열 조합	선택 가능한 학과가 속한 대계열(대학 자체 계열)					모집단위수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1개 계열	○	-	-	-	-	119개	11,827명
	-	○	-	-	-	35개	2,594명
	-	-	○	-	-	19개	1,550명
	-	-	-	○	-	80개	9,663명
합계						318개	34,732명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대학의 모집 현황

- 분석의 범위를 좁혀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한 대학 118개교만을 대상으로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인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해당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18.8%를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나타남.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한 사립대학의 경우 모집인원의 20.4%를 전공자율선택제로 모집해 신입생 5명 중 1명을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해 모집한 것으로 분석됨
-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한 대학의 수는 전체 분석대상 대학 183개교의 64.5%에 해당되지만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한 대학의 모집인원 295,503명은 전체 모집인원 356,472명의 82.9%에 해당함. 이는 모집인원 규모가 큰 대학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확대 시행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줌

〈표 7〉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대학 내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공자율선택제 미적용 모집인원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인원			전체
			유형1	유형2	합계	
전체(118개교)		239,903	20,868	34,732	55,600	295,503
		81.2	7.1	11.8	18.8	100.0
설립	국공립	61,620	3,356	6,460	9,816	71,436
		86.3	4.7	9.0	13.7	100.0
	사립	178,283	17,512	28,272	45,784	224,067
		79.6	7.8	12.6	20.4	100.0
소재지	수도권	113,938	11,917	16,088	28,005	141,943
		80.3	8.4	11.3	19.7	100.0
	비수도권	125,965	8,951	18,644	27,595	153,560
		82.0	5.8	12.1	18.0	100.0
정원 구분	정원내	202,199	19,969	32,007	51,976	254,175
		79.6	7.9	12.6	20.4	100.0
	정원외	37,704	899	2,725	3,624	41,328
		91.2	2.2	6.6	8.8	100.0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 전공지율선택제를 시행한 대학에서 전공지율선택제를 적용한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타 모집단위에 비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공지율선택제를 적용하지 않은 모집단위의 경쟁률(9.7:1)이 전공지율선택제를 적용한 모집단위(8.8:1)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1의 경우에는 10.3:1로 전공지율선택제를 적용하지 않은 모집단위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8.3:1)은 사립대학(10.0:1)보다 전반적인 경쟁률이 낮았음에도, 유형1이 적용된 모집단위의 경쟁률(11.0:1)은 사립대학 유형1의 경쟁률(10.2:1)보다도 높게 나타나 국공립대학의 전공지율선택제 유형1 모집단위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유독 높았던 것으로 드러남

<표 8> 전공지율선택제 시행 대학의 경쟁률

(단위: 명)

구분		전공지율선택제 미적용 모집단위			전공지율선택제 적용 모집단위									전체 모집단위		
					유형1			유형2			유형1+유형2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전체(118개교)		239,903	2,337,975	9.7	20,868	215,795	10.3	34,732	271,357	7.8	55,600	487,152	8.8	295,503	2,825,127	9.6
설립	국공립	61,620	507,558	8.2	3,356	36,800	11.0	6,460	45,140	7.0	9,816	81,940	8.3	71,436	589,498	8.3
	사립	178,283	1,830,417	10.3	17,512	178,995	10.2	28,272	226,217	8.0	45,784	405,212	8.9	224,067	2,235,629	10.0
소재 지	수도권	113,938	1,498,156	13.1	11,917	159,231	13.4	16,088	177,296	11.0	28,005	336,527	12.0	141,943	1,834,683	12.9
	비수도권	125,965	839,819	6.7	8,951	56,564	6.3	18,644	94,061	5.0	27,595	150,625	5.5	153,560	990,444	6.4
정원 구분	정원내	202,199	2,168,645	10.7	19,969	212,163	10.6	32,007	257,843	8.1	51,976	470,006	9.0	254,175	2,638,651	10.4
	정원외	37,704	169,330	4.5	899	3,632	4.0	2,725	13,514	5.0	3,624	17,146	4.7	41,328	186,476	4.5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전공지율선택제 유형1 적용 모집단위의 등록금 분석

- 전공지율선택제 유형1을 시행하는 99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유형1 적용 모집단위의 평균등록금은 7,745,660원이고, 나머지 모집단위들의 평균등록금은 7,116,207원으로, 전공지율선택제 유형1이 적용된 모집단위의 등록금이 유형1이 적용되지 않은 모집단위들의 평균등록금에 비해 평균적으로 629,452원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에서 유형1 적용 모집단위와 유형1을 적용하지 않은 모집단위 간의 평균등록금 차이는 27,166원이었던데 비해 사립대학에서는 181,153원으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수도권 대학의 유형1 적용 모집단위와 이를 제외한 모집단위 간 평균등록금 차이 값은 635,788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의 두 값의 차이값인 103,892원보다 5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9> 전공지율선택제 유형1 시행 대학의 평균등록금

(단위: 명, 원)

구분		유형1 적용 모집단위			유형1 미적용 모집단위			(A) - (B)	전체 모집단위 평균등록금
		입학정원	입학정원 X 등록금	평균등록금 (A)	입학정원	입학정원 X 등록금	평균등록금 (B)		
전체(99개교)		20,021	155,075,853,061	7,745,660	197,640	1,406,447,197,252	7,116,207	629,452	7,171,781
설립	국공립	3,301	14,196,843,420	4,300,770	56,162	240,014,180,058	4,273,605	27,166	4,275,113
	사립	16,720	140,879,009,641	8,425,778	141,478	1,166,433,017,194	8,244,625	181,153	8,265,612
소재지	수도권	11,575	101,566,036,557	8,774,604	91,668	746,068,913,498	8,138,815	635,788	8,210,096
	비수도권	8,446	53,509,816,504	6,335,522	105,972	660,378,283,754	6,231,630	103,892	6,228,868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8-차-1. 등록금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 전공자율선택제 유형1을 시행한 대학들 내 전공자율선택제 유형1 적용 모집단위와 그렇지 않은 모집단위 간 등록금 차이를 설립 및 소재지별로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전공자율선택제 유형1이 적용된 모집단위의 등록금이 해당 대학 타 모집단위들의 평균등록금보다 더 높게 책정된 대학의 수는 54개교로, 더 낮게 책정된 대학 수(45개교)보다 많았음
-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공자율선택제 유형1이 적용된 모집단위의 등록금이 그렇지 않은 모집단위의 평균 등록금과 주로 ±50만원 이내에서의 차이를 보인 반면 수도권 사립대학은 유형1 모집단위에 대해 타 모집단위 평균 등록금 대비 100만원 이상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이 11개교,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유형1 모집단위에 대해 타 모집단위 평균 등록금 대비 100만원 이상 낮은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이 10개교 존재함
- 각 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향후 어떤 계열에 속한 학과를 선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했음.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몰릴지 사전에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 보수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계열별 등록금 인상을 산정 시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의 등록금은 제외됨에 따라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의 등록금을 둘러싼 이슈는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표 10〉 설립 및 소재지별 전공자율선택제 유형1 적용 여부에 따른 평균등록금 차이

(단위: 개교)

구분	-100만원 보다 낮음	-10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0원 미만	0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높음	총합계
수도권 국공립	-	-	2	2	1	-	5
비수도권 국공립	-	3	5	6	2	-	16
수도권 사립	1	2	9	9	12	11	44
비수도권 사립	10	5	8	6	4	1	34
합계	11	10	24	23	19	12	99

* 자료: 2025년 대학정보공시 8-차-1. 등록금 현황,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정보(내부자료)

V. 결론 및 제언

- 많은 대학들이 전공자율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해인 2025학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정부재정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진 대학들이 재정 지원과 연계된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교육부는 향후에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공자율선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도입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부제 시행 당시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 기초학문 위기, 맞춤형 학생지도체계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한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전공자율선택제 적용 모집단위의 전공적합성 평가 방안, 입학 후 학생들의 전공 선택 경향,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간 교과 및 비교과 과정 공동 운영 사례 등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대학의 현황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교육부(2024a).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4.1.30.).

교육부(2024b).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2025).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5.3.20.).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5년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지침 및 입력시스템 매뉴얼. 한국대학교육협의회